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조 현 진*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서 보 순**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박 량 은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상의 장애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99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장애대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대학진학'과 '미룰 수 없는 진로결정'의 인과적 상황에 따라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의 중심 현상을 경험하였고, 이 현상은 '인적자원들의 지원',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체계'의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심리적 어려움'과 '진로준비의 어려움'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대학제도의 활용', '내면적인 노력',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적극적인 진로준비'와 '지속적인 자기노력'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은 '탐색과 선택', '불안과 혼란', '조절과 전환', '도전과 성장'의 4단계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범주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였다. 이 연구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위한 상담,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근거이론

* 제 1저자 (bbung01@hanmail.net)

** 교신저자 (sbsboss@hanmail.net)

1. 서론

대학은 심도 깊은 지식을 배우는 학문 탐구의 장이자,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예비 사회인의 양성기관이다. 대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발달적 전환 및 진로의 탐색, 결정, 개발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Rowell, Mobley, Kemer, & Giordano, 2014). 우리 사회에서 진로의 결정과 그에 따른 준비는 대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대학 시기는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박혜영, 황매향, 2005; 정진자, 임명희, 2006).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는데(김봉환 외, 2010),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는 결정과 미결정 사이를 여러 번 넘나들면서 점차적으로 진로결정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거친다(임은미, 2011). 연구자들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결정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진로의사결정'(이송이, 2014), 진로결정의 진행수준 및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뜻하는 '진로결정 수준'(이미아, 강영심, 2011), 진로 결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진영, 정원철, 2014) 등의 개념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탐구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성격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임은미, 2011; Guay et al., 2006; Metheny & McWhirter, 2013; Wang et al., 2009). 또 진로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김장희, 2014),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으며(Rottinghaus, Jenkins, & Jantze, 200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과 진로성취를 위한 실행도가 높아짐을 제기하였다(김진영, 정원철, 2014). 반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미결정 상태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낮음이 보고되었다(석말숙, 강동욱, 2005; 이민선 외, 2010). 박선희와 박현주(2009) 또한 진로미결정이 정체감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며, 이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압박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하면서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장애학생에 있어서도 진로결정은 대학에서 이루어야 할 주요과업이다. 장애학생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며, 졸업 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권현용, 김현미, 2004; 김미선, 박중휘, 2013; 최지영, 2009). 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에게 있어 취업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경선 외, 2013).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필요성 확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입학전형제의 실시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2014년에 15.9%에 이르렀으며(교육부, 2014),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대학생이 되었다는 자부심, 혼자 해냈다는 자신감,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지영, 2009).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성적이 낮고, 졸업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리며, 중도탈락률이 높고, 졸업 후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성애, 박찬용, 이해균, 2003; 석말숙, 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은 고등교육이 자신감과 취업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고등교육이 취업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고용의 양상은 비장애인 고용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Dowrick et al., 2005; Sears, Strauser, & Wong, 2014). 대학진학을 통해 진로결정을 유보하는 기간을 확보하였지만, 졸업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은 장애대학생에게도 심리적인 압박 요인이다.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학력증진 현상은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양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다면적인 진로지원 요구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장애관련 요인들과 진로문제는 밀접한 상관이 있고(김은실, 손현동, 2009; 임통일, 2013), 장애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김정은, 2014; 이문정, 박봉길, 2014). 장애로 인한 직·간접적인 문제들이 동반됨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준비 정도 및 참여 시간 부족, 취업 정보의 획득 및 잠재적인 직업 선택에서의 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족, 진로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맥락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관리 미숙, 자기옹호 기술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동일 외, 2011; 정진자, 임명희, 2006; 최지영, 2009; Sears, Strauser, & Wong, 2014). 또한 Hitchings 등(2001)은 장애대학생의 진로에 대해 부모와 전문가들이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부모가 진로발달에 관한 결정을 대신해주거나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장애학생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가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진로결정에 있어 장애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이 장애대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드러내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대학생들이 가지는 진로결정에서의 특성을 찾아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세영과 박재국(2013)은 사회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수준에 따라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미아와 강영심(2011)은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에서 주변의 지지와 모델링, 활동, 조언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장애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 개인적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 김호연(2013)은 장애대학생들이 취업에 바탕이 되는 독립생활 기술,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고 하였고, Madaus(2006)는 인턴십과 멘토링을 비롯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방향이 나름의 특수성을 가져야함을 암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경선 등(2013)은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취업준비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나, 높은 취업준비 및 실행집단에서는 비장애학생보다 장애학생이 더 높은 취업 준비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여 진로결정에서 장애학생이 가지는 특유의 강점이 있음을 일깨웠다.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생애주기적으로 필히 거치는 핵심적인 경험이고, 장애대학생이 체험하는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이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되었던 선행연구들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경향과 당면한 어려움을 밝혀내고, 진로결정 관련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비장애학생들의 진로결정 경향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의 경험을 깊숙이 들여다보아 그들이 관련된 사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로결정의 과정에 어떤 일들과 인물들이 작용하였고,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단계는 어떠한 것이며,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전략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미결정의 복합적인 순환과정을 들여다보고, 세부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진로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촉진요인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임은미,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로결정에 관한 현상을 설명하고, 진로결정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이론적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경험을 분석하여 그들의 관점이 반영된 진로결정 과정을 밝혀내고 그 단계를 설명하여, 기존에 보고된 실증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특성을 밝히고, 진로결정에서 이들이 갖는 강점을 찾아내며,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 설계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 및 실천적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개념을 도출하고, 모형을 구성하며, 진로결정의 단계를 규명하고자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행하였다. 근거이론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Creswell, 2015),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지만 유연한 지침이다(Charmaz, 2013).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B광역시 A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을 1년 이상 겪은 2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모집하였다. A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9명과 이들이 소개한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명의 학생에게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는 남학생 9명, 여학생 3명이 포함되었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다수였다. 시각장애 5명, 지체장애 4명, 청각장애 2명, 뇌병변장애 1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었으며,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면담이나 통화 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분명하게 발음하여 질문하였을 때 모두 의사소통이 원활하였고, 이메일을 통한 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년	학과	장애유형(등급)
A	남	25	4	사회복지학과	시각장애(6)
B	여	23	3	독어독문학과	지체장애(5)
C	남	23	3	노어노문학과	시각장애(4)
D	남	23	3	사회복지학과	지체장애(3)
E	남	30	4	특수교육과	시각장애(1)
F	남	22	3	사회복지학과	시각장애(2)
G	여	22	3	사회학과	청각장애(3)
H	남	22	3	산업공학과	지체장애(1)
I	남	22	3	특수교육과	시각장애(1)
J	여	21	2	사회복지학과	청각장애(2)
K	남	21	2	재료공학부	지체장애(3)
L	남	21	2	공공정책학부	뇌병변장애(3)

2. 연구도구

연구자들은 대학생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김경선 외, 2013; 이웅 외, 2011; 이정애, 최용용, 2010; 임은미, 2011; 정세영, 박재국, 2013; 정진자, 임명희, 2006)을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추출하고, 연구자간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구성된 면담 질문 목록은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2명에게 의뢰하여 연구목적에의 부합도, 문항내용의 타당성, 상호배타성 및 구체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초점질문은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였으며, 대학진학 및 학과 선택의 이유, 진로의 의미, 진로결정의 이유, 진로결정 촉진요인, 진로결정 장애요인, 진로결정을 위해 받고 싶은 도움, 진로 준비행동, 진로와 관련해 경험한 사건들 등의 세부질문이 포함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연구자들은 먼저 관련 장애대학생 진로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대면 및 전화, 이메일로 섭외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응답내용의 녹음 및 분석 절차를 안내하고, 연구 중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의뢰·회수하였다.

면담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먼저 서면 면담에서는 대학진학 및 학과 선택의 이유 및 과정, 진로결정 여부, 진로결정 영향요인, 진로결정에 대한 지원요구, 대면 면담에서 나누고 싶은 사항을 기록하는 개방형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서면 면담의 응답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후, 참여자별로 대면 면담 시 활용할 세부 질문목록을 반구조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대면 면담은 주저자가 7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먼저 실시하였고, 공동 연구자 1명이 이전 면담의 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한 후 6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실시하였다. 대면 면담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조용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1시간~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면담자는 면담 시 또는 면담 직후 메모를 작성하고, 면담 진행 기간 동안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범주 도출을 위해 논의하고 메모하였다. 대면 면담 후 자료 전사 및 분석의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면 면담과 전화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면담 자료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4년의 교사경력을 소지하였으며 면담을 실시한 공동 연구자 1인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면담자료는 연구자들이 반복적 읽기를 통해 유사한 범주의 응답을 범주화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에 달리 코딩되는 응답은 대면하여 합의하고 재코딩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체계적 접근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에서는 전사본과 메모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개념을 부여하였다. 개념은 연구 참여자의 응답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응답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말로 부여하였다. 또 의미가 유사하거나 연관되는 개념을 묶으며 범주화하였다. 둘째, 축코딩(axial coding) 시에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방 코딩에서 제시된 범주를 연결하고 유목화하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의미가 발견되었을 때는 메모, 추후 서면 및 전화 면담을 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수정하며 범주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인 인과적 상황,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조직화하였다. 셋째,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축코딩에서 드러난 범주를 정련하고 통합시켰으며,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야기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정리하기, 메모 정리하기, 연구자 간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의견 나누기, 지속적으로 검토하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 가지의 코딩과정을 반복하고 되돌아가며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나타내는 전략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합하여 진로결정의 단계를 도출하고 진로결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모집 시 다양한 전공의 장애학생들을 참여토록 하였고, 대학 진학 후 1년 이상의 학교생활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섭외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이 면담, 전사, 코딩,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들이 함께 분석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자료 수집과 분석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나 연구자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료에 충실한 분석을 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member check),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점검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대학생 2명에게 자료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질적 연구를 3편 이상 수행한 관련 분야 연구자 2명에게 연구결과를 검토하도록 의뢰하여(peer check)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 근거자료의 범주화

장애대학생과의 면담에서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의 과정에서 99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과정의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대학 나온 사람을 보는 호의적인 시각을 느낌,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쉬울 것이라 여김, 장애인인데 고졸이면 취업이 더 힘들 것 같아 대학에 옴, 진로결정을 보류하고 일단 대학을 옴, 공부가 또 하나의 진로가 됨.	대학을 통해 넓은 선택의 폭	진로를 위한 대학진학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음, 몸이 불편한 내가 사무직을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함, 대학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식함, 정해진 진로가 대학에서 구체화 됨.	꿈을 이루기 위한 진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압박감이 가중됨, 취업준비생 신세가 되고 싶지 않음, 4년만 다니고 취업하라는 가족의 바람.	결정의 시간이 다가옴	미룰 수 없는 진로결정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취업을 해야 함,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가 압박함을 감지함.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문	
부모의 권유로 진로를 결정함, 가족이 힘을 실어 줌, 가족의 직업에 영향을 받음, 친척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받음.	가족의 영향	인적자원들의 지원
고등학교 선생님의 조언이 아직도 깊이 남음, 취직할 선배가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줌, 장애를 가진 지인의 지원을 받음, 학우들과 정보 교환함.	주변 사람들의 도움	
장애인 의무고용이 기회가 됨, 장애인 특별전형은 로또.	장애인 고용 확대 제도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체계의 영향
장애인고용공단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서비스	

<표 2>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과정의 개념 및 범주화(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제일 안정적인 공무원, 연급과 급여가 좋은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함, 업무가 편하고 적응하기 좋은 직업을 원함, 사기업은 장애로 인해 장기근속이 힘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함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
장애인인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음,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음,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되길 원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직장을 원함, 장애인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끌림.	장애를 고려한 진로결정	
중고등학교 때 벌써 진로가 결정됨, 결정한 진로가 흔들리지 않음, 공무원·공기업·대학원 중 하나	한정적인 진로의 목록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장애 때문에 자주 아픔, 집중이 안 돼 공부가 힘들, 남들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림, 남들보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함.	장애로 인한 어려움	
스트레스가 쌓임, 불합격을 걱정함, 제때 졸업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격시험에 떨어져 시간이 더 걸릴까 불안함, 취업도 안됐는데 졸업하게 될까봐 염려함.	취업에 대한 불안감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걱정스러움, 업무에서 타인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 나의 직무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취업 후 적응에 대한 두려움	진로준비의 어려움
진로준비에 돈이 계속 들어감, 장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음, 진로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 못함.	경제적 어려움	
오로지 혼자서 하는 공부, 청각적 문제로 자막이 없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음, 시각적 문제로 ppt 강의 자료를 볼 수 없음, 시험 시 제공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음, 장애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정보 접근의 제한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원하던 것과 다름, 학과공부 따로 취업 따로,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옴, 공무원에 합격하면 대학졸업은 의미가 없음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	대학제도의 활용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자원이 유용함, 생각보다 좋은 보조공학기기, 미리 보는 교재 파일	물적 지원의 활용	
이동과 학습에 도우미가 필요함, 도우미가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됨, 속기사의 도움을 받음.	인적 지원의 활용	내면적인 노력
힘들 때 하게 되는 기도, 종교인의 자세로 이겨냄.	종교의 힘을 빌림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마인드컨트롤을 함, 시험을 앞두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짐,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짐.	마음을 다잡음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격을 밝게 바꾸어 감, 학내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 낮을 가리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화함.	성격변화를 위한 노력	
돈을 벌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음, 부모님으로부터의 자립을 꿈꾸게 됨.	경제적 자립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
취업 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음, 다정하고 믿을 만한 교사가 되고 싶음, 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음, 직장동료들과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음.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음,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싶음.	일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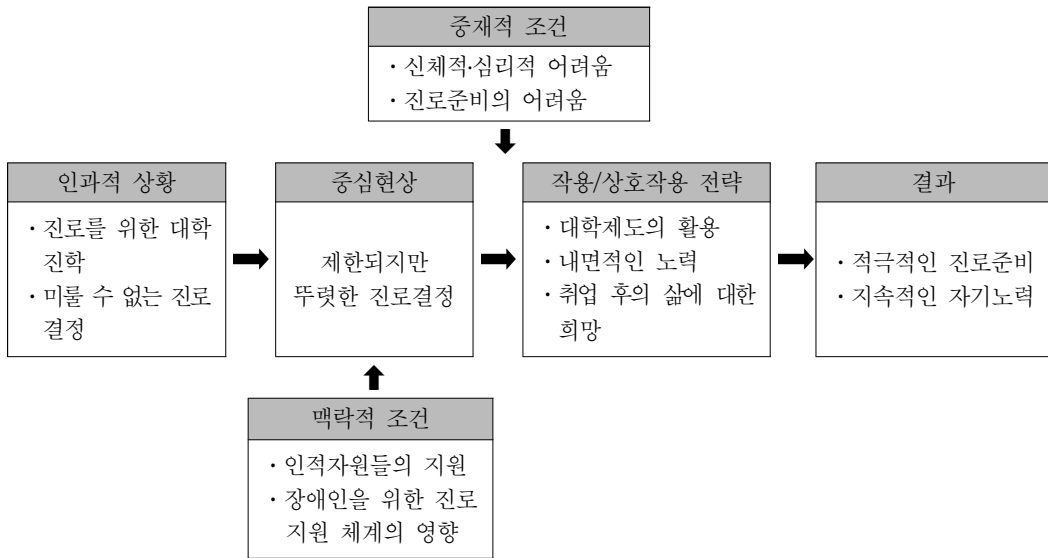
<표 2>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과정의 개념 및 범주화(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어학연수를 다녀옴, 진로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함,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함, 직장인의 강연을 들음.	다양한 경험을 시도함	적극적인 진로준비
취업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음, 채용 시험에 집중하고자 휴학을 함, 학우들과 스터디를 함, 영어공부와 학점관리는 꾸준히.	진로관련 공부에 열중함	
선배에게 직업 정보를 물어봄, 진로와 관련된 시험정보에 대해 알아봄, 장애인 취업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음,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함.	능동적인 진로정보 탐색	
진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자 노력함, 진로를 준비하면서 영어실력이 늘, 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	자기개발	
목표를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함, 학점 4점대 이상을 목표로 공부함, 원하는 나이 안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	목표가 확고해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열심히 하는 힘을 배움, 공부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됨, 학과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함, 진로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게 됨,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고자 함.	스스로의 힘을 발견함	지속적인 자기노력

2. 축코딩: 범주의 맥락과 흐름

1)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히고, 범주들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의해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 맥락을 보여준다(황정희, 정계숙, 2015). 축코딩을 통해 창출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장애대학생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과적 상황은 ‘진로를 위한 대학진학’, ‘미룰 수 없는 진로결정’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인적자원들의 지원’,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체계의 영향’, 중심현상은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진로준비의 어려움’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은 ‘대학제도의 활용’, ‘내면적인 노력’,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적극적인 진로준비’, ‘지속적인 자기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상황

인과적 상황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인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 결정’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진로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는 인과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진학이 우리 사회에서 진로를 위해 하게 되는 당연한 선택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이라 여겼다. 특히 장애인인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인식이나, 취업의 기회가 낮아지게 될 것이 염려되었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학은 자신의 꿈에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관문으로 진로에 필요한 소양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진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처 결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진로를 대학에 와서 찾거나 생각해 둔 진로를 더욱 분명히 해 주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하였다. 대학 진학 후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자립을 위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준비해야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 때가 왔음을 지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5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1호)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고,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어쩌다가 온 것 같아요.(중략) 약간 우리나라가 좀 학벌주의라고 하잖아요, 대학 안 나오면 잘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냥 대학교 온 것 같아요. (참여자 G)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건, 사무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노동직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대 가서 취업 잘 되는데, 가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 취업해서 돈 잘 받고, (참여자 B)

제 꿈이 변호사나 고시직 뭐 이런 것이어서 행정학과나 행정학과 비슷한 걸 찾고 있었어요, 찾아보니 우리 학교에 공공정책학부가 있더라고요, 과가 공공정책이니까 공직과 비슷한 계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더라고요, (참여자 M)

제가 나이도 20살 넘었는데 저 혼자 일단 자립하고 싶어서, 나가서 살고 싶고, 아버지가 빨리 4년만 하고 취업해라 이런 투로 말하시니까.(참여자 J)

고등학교 때는 보는 눈이 좁았어요, 대학만 가자, 대학만 어떻게든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보니까 어떻게든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장애인인데 내가 과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2학년 3학년이 되다보니까 점점 더 그러한 압박들이 심해지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같은 ‘인적 자원들의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체계의 영향’이 장애대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꼽았다. 부모의 권유나 직업에 영향을 받아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친척의 진로준비 과정을 보고 자신의 꿈을 찾기도 하였다. 대학 입학 전에 만났던 담임교사나 과외교사가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우들이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최근에 취업을 한 선배들과의 만남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대학교수나 취업전문 강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더해 장애인의 진로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이나 제도 또한 자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확대된 장애인 특별전형은 진로를 정하는데 동기를 부여해주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또 진로개발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취업정보, 장애대학생을 위한 학내 지원망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역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주변에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런 정보에 밝아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도 시각장애 6급이고, 자기 정보 알아보면서 제 것도 많이 알려줬어요, (참여자 E)

최근에 졸업한 선배나 취업한 선배, 선배 쪽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정보를 현실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인사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특강하는데 가보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설명해주고, 결론은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끝이니까, (연구참여자 D)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커트라인을 보면 많이 낮더라고요, 일반인들보다 평균 20점 정도, 그걸 보면 '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안일함이 될 수도 있고..., (참여자 A)

공무원, 일반 회사를 생각해봤다,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쪽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참여자 I)

(3)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중심 현상은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이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 중 10명의 학생이 진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급여나 연금, 근무시간, 휴가 등의 처우가 잘 보장되고, 실직의 위험이 낮으며,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직무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로결정에는 장애인이 취업한 선례가 있어 장애인을 위한 근무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어서 장애를 가진 자신이 원만히 섞일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지가 고려되었다. 또한 자신이 장애인의 삶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장애인을 만나는 직업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결정한 진로를 그대로 고수해 온 경우도 있었고, 다른 길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아직 진로 미결정 상태인 2명의 학생들도 공무원과 대학원, 공기업 가운데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어 진로결정 양상이 매우 한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기업에 들어가서 사무직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에 합격만 하게 된다면 인생이 편다고 말할 정도로 잘릴 위험도 없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B)

그래도 차라리 공기업이나 그쪽은 휴가 같은 건 제대로 딱딱 이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휴가를 써서 여행을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싶기도 했고요. (참여자 I)

고등학교 2학년 때 인 것 같아요. (중략) 장애등급을 받으니까 대기업이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취직이 힘들잖아요, 완화 됐지만 힘들니까, 힘든 길을 갈 바에는 공기업이나 국가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 때부터 공무원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삶도 안정적이고 제가 중도에 장애를 가져서 중도장애인이 되니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는데 조금 더 빨리 특수교육 쪽에 들어왔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도에 장애인이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특수교사가 되려고 해요. (참여자 E)

저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용고시 응시 및 합격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지만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최고의 성취이며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에게 뚜렷한 목표인 특수교사로 발령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자 F)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지칭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였지만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수업을 듣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며, 몸이 자주 아픈 등 신체적 어려움이 실제로 신체적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채용시험 합격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격증 취득 시험에 불합격해 시험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졸업을 하게 될까봐 염려하였다. 이들은 취업 후의 많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업무처리를 따라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하고 있었다.

장애학생들은 진로준비 과정에서도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이 컸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장애로 인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진로준비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모두 부모로부터 받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에 접근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청각장애 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난감함을 겪고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은 국가시험 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고려한 도움이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다수는 진로를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공부가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원하던 공부와 실제 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의 괴리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생활은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컨디션 같은 게 몸이 불편하니까, 오래 앉아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못하고,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고, 10시간 이렇게 자야 되고, 8시간, 그래야 다리가 안 저리고 하니까. (참여자 B)

준비하면서 힘든 건 아마 그거죠, 불안감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몇 백대 일이니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시험을 4월에 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C)

점심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야 할 상황이 있다면, '아,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할 건데 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면서 공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어요. (참여자 A)

취업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업무처리 그런데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대학이랑 사회는 약간 다르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지……, (참여자 B)

임용공부를 하다보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임용강의 같은 거 수강해야 하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서, 애들은 알바해서 돈을 모으는데, 저는 알바가 쉽지 않으니까, 안마를 하면 되는데, 그건 밤일이라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요. (참여자 F)

학과 자체에서 배우는 건 그럭저럭 저랑 잘 맞는데 취업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도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수업 내용 자체가 딱히 실용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별로인 것 같아요. (참여자 G)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조절하고 실행하며 거기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이다(Strauss & Corbin, 1998).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연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목적을 지니는 목표지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신유리, 2012).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결정된 진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대학제도의 활용'과 '내면적인 노력',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참여에 있어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자원과 이동·학습·생활도우미, 속기사와 같은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소개

하였다. 그렇지만 인적 자원을 통한 지원은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수준이 확대되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같은 내면적 어려움은 종교에 의지하거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면서 이겨내고자 하였고, 소극적인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동아리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적극적인 시도를 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취업 후의 자기 모습과 일에 대한 보람을 기대하면서 진로준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속기사가 지원되는 수업 2과목 들었어요, 학습 도우미하고요, 속기사가 안 들어오는 수업에는 친구가 도우미로 펴기 해주고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게 학습 도우미인데 1명만 된대요, 속기사도 2과목만 되고, 그런데 들어야 되는 학점은 한 학기에 많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참여자 G)

‘될 거다, 될 거다’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포기 할 것 같아서요, 공부해야 할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에 적정히 해서 가야지, 욕심 부리다가 더 망쳐버렸거든요, 탈나지 않게 시간 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E)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년 초반에 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낮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2학년 돼서는 사건 친구마저도 군대 가고..., 한동안 혼자 다녔죠, 그런데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친구 사귀려고. (참여자 M)

그냥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교과외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생과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맹학교 선생님들과 그랬거든요, 개인 여가시간을 빼서 우리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게 좋았어요,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교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I)

(6) 결과

결과는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을 보인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의 지원과 개인 내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 후의 희망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진로준비’와 ‘지속적인 자기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어학연수를 가거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취업정보를 선배에게 묻기도 하였으며,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아가는 등의 능동적으로 노력했던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취업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만들거나 휴학을 하기도 하였으며, 학점관리, 영어공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목표가 확고해지면서 진로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휴학을 했거든요, 실강(오프라인 강의) 들으려고, 실강이 긴장감이 있어서, 공무원 학원을 단기로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앞에 앉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진짜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저히 앞에 못 앉아서..., 앞에 앉아야 볼 수 있는데, 자극이 많이 됐어요, 결국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인강(인터넷 온라인 강의)으로 들었어요, 지금도 인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현재진행형입니다. (참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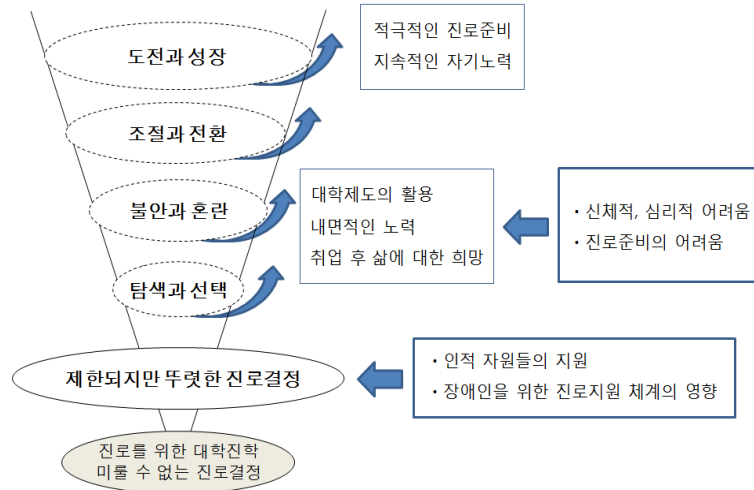
공기업 취업정보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보니까 장애인 전형이 진짜 많아요, 공기업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가산점 10% 주고, 그런 카페가 있어요, '삼장사'라고, 삼만 장애인 취업센터,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참여자 H)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임용공부예요, 동기들과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기개발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연주, 색종이 접기, 자전거 등을 방학동안 배워볼 생각이예요. (참여자 I)

2)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이라는 중심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러다임 모형에서 나타난 범주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은

‘탐색과 선택의 단계’, ‘불안과 혼란의 단계’, ‘조절과 전환의 단계’, ‘도전과 성장의 단계’로 나타났으며,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첫째, ‘탐색과 선택의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진로를 중학교, 고등학교시기에 정보탐색과 수집을 거쳐 결정하였다. 취업 후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먼저 탐색하고, 자신이 가야할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대부분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교사’라는 제한적이고도 뚜렷한 진로결정을 보였지만 바로 취업을 결정하기보다 고학력을 원하는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능력향상이라는 개인적 기대를 위해 대학진학을 결심하였고, 대학교육이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기관의 도움과 장애인 전형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이들의 진로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불안과 혼란의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단계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 뿐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취업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또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단계이다. 더불어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취업 후 대인관계와 업무에 대한 걱정이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원하던 공부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 간 이질감이 진로결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면서 ‘조절과 전환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과 혼란 상태에 머물며 좌절과 적응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셋째, ‘조절과 전환의 단계’는 진로준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개인적·환경적 차원의 전략을 활용하고 이를 구축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며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문제해결 방식을 터득해 나간다. 이들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겪는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취업 시험과 취업 후의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의 경험들이 취업 이후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 믿고, 이를 준비하는 배움과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환을 시도한다.

넷째, ‘도전과 성장의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불안과 혼란의 경험들을 조절하고, 견디면서 전환을 시도한 결과, 진로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도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학연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였으며, 능동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시각과 성숙한 의식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적인 많은 경험과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해 역량이 향상되며, 주변인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한다.

3. 선택 코딩: 범주의 통합과 정교화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론을 형성하는 차원화의 단계에 따라 범주를 명확히 하고, 통합하여 관계에 대한 통합과 진술의 근거를 확실하게 정교화 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범주는 ‘지속적인 자기노력을 통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였다.

장애대학생들은 대체로 장애로 인해 한정적인 진로를 결정하였다. 고학력자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학업을 계속 하고자 욕구에서 대학진학을 결심하고, 진로에 맞는, 도움이 될 만한 전공학과를 선택하였다. 이는 주변의 도움과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진로결정이 더욱 분명해지고, 대학입학과 함께 진로준비 활동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결정을 했음에도 초기 진로결정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몸이 자주 아프고, 취업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느끼는 취업에 대한 압박감에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를 고려한 도움과 정보의 부족은 큰 환경적 제약으로 다가왔으며, 학문적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진로결정에 혼란을 주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갈등하지만 대학제도의 도움을 받고, 본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종교적 힘과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위안, 취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 등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고, 진로결정을 확고히 하는 동기가 되었다. 아울러 취업 후의 경제적 자립, 일에 대한 보람과 사회인으로서의 기대는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장애대학생들의 태도는 적극적인 진로준비로 이어져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공부에 열중하는 등 스스로의 잠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들로 인해 진로결정의 목표가 점차 안정되어가며, 장애대학생은 진로와 연관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의 핵심 범주인 ‘지속적인 자기노력을 통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는 장애대학생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적 현상인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 사회적 제도 등의 도움과 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의 자원과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현상을 설명하고, 진로결정의 과정을 밝혀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어려움, 강점을 탐색함으로써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발전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진로결정의 개념을 범주화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을 밝혀내었다. 연구결과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진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는 인과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교사 등 인적자원들의 지원과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인 전형 제도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진로지원 체계가 그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문으로써 진로결정을 미룰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지이레, 2010; Jennifer & Ellen, 2013), 독립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진로준비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임통일, 2013; 정진자, 임명희, 200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 행동이 직업 세계에 대한 진로 활동 경험과 개인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의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원 등을 가리키는 사회적 지지자 지원을 통한 직업정보 탐색으로 이뤄진다는 김정선 등(2013)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이상희, 2012),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대상 진로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대학생들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인적자원을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대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위해 지역 및 대학기관의 장애인 진로탐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형제도가 진로결정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대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로결정을 위한 실행에 다가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김동일 등(2013)은 장애수용을 통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때로는 장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장애로부터 이점을 얻도록 도모하기도 한다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장애인을 위한 진로 지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심도 깊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이 다양한 정보에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이 요구되며, 장애대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장애 대학생 진로결정의 동기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제한되지만 뚜렷한 진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며, 장애를 고려한 진로를 고려하면서 결정이 뚜렷해지는 반면, 진로결정 분야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이 개인의 적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 뿐 아니라 연봉, 안정성, 근무조건과 같은 외재적인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기한 선행연구들(김호연, 2013; 장홍근, 2009)과 연관된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아직 상당한 제한이 있음(Sears, Strauser & Wong, 2014)을 역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 등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장애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관련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통일(2013)의 연구와는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적을수록 학생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진성희, 성은모, 2012), 장애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관련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위축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류진숙, 2012; 이은주, 2011)과는 차이가 발견된다. 실제 장애관련 요인들로 인해 진로영역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장애와 관련된 직업을 고려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장애와 진로결정은 양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과 '진로준비의 어려움'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대학제도의 도움'과 '개인 내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 후의 희망'을 가지면서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이 가지는 장애의 심각성이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양한 연구들(김정은, 2014; 정세영, 박재국, 2013; 조혜정, 2013; Dawn, 2011)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 행동에 있어 공통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곧 장애대학생들에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진로결정과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지원에 있어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대학생들은 진로준비를 함에 있어 진로를 위해 대학에서 배우기를 바랐던 것을 배우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여, 학문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들 가운데 이미 중·고등학교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준비 및 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진학을 결정한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진학 이전에 대학의 교육과정 및 전공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진학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학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접근과 참여가 용이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로 인한 제약을 이겨 내고자 하였고, 내면적인 노력과 취업 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의욕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준비 행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 후에 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김경선 외, 2013), 장애대학생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정진자, 임명희(2006)는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계획수립, 문제해결은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최지영(2009) 또한 장애대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리적인 적응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힘을 소유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삶을 개척하는 원동력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프로그램, 역량 개발 프로그램, 상호지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자 하는 과정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진로준비'와 함께 '지속적인 자기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과 진로 성취를 위한 실행도도가 커짐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 결정에서 다양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계획과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김진영, 정원철, 2014), 실제 장애대학생들은 진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계발에 매진하면서 진로결정이 안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에게 개인의 진로방향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이후에도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형성 및 증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의 핵심 범주는 '지속적인 자기노력을 통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환경적 차원의 도움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의 자원과 역량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탐색과 선택', '불안과 혼란', '조절과 전환', '도전과 성장' 단계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지원 방안들이 각 단계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김미선, 박중휘, 2013; 한성덕, 2006; Sears, Strauser & Wong, 2014)에서 장애대학생은 장애와 관련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진로 적성에 대한 확신, 취업 정보의 획득 및 잠재적인 직업 선택에서의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과정을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적응력과 잠재성 또한 발견하였다.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장면에 통합된다(김동일 외, 2013). 이와 같은 장애대학생들의 강점을 토대로 그들이 지각하는 진로결정 단계에 따라 각각의 필요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확신이 부족하거나 결정한 진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진로지원 개입을 통해 불안과 혼란의 단계를 벗어나 조절과 전환의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들을 펼쳐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척도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들로, 실제 장애대학생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경험을 발견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진로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대학생 진로결정 전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의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특정지역 상위 수준의 A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사례들이 갖는 특성을 심층적으로 밝혀 낼 수 있다는 질적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 전체 집단에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 선정에 있어 대학 수준과 소속 계열 등을 고려한 목적적 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대학생 다양한 측면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개입이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따른 장애대학생들의 변화, 그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반영한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단계에 따라 진로결정 양상을 살펴보고, 취업성과,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기 위한 중단연구도 수행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2), 43-56.
- 김경선, 김동일, 정소라, 이재호, 장세영 (2013).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탐색: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3(3), 65-83.
- 김동일, 손지영, 심성용, 이주명, 김수정 (2011).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387-412.
- 김동일, 정소라, 고혜정, 김주선, 김수연 (2013).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분석: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65-95.
- 김미선, 박중휘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 김민희, 최용용 (2007).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 연구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0(2), 193-212.
- 김봉환, 이재경, 유현실, 황매향, 공운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 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은실, 손현동 (2009). 장애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49-178.
- 김장희 (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직업 교육 연구**, 33(2), 121-144.
- 김정은 (2014).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1(2), 27-47.
- 김진영, 정원철 (2014).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4), 249-275.
- 김호연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과 선택 및 진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시각장애연구**, 29(1), 1-23.
-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혜영, 황매향 (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석말숙, 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71-194.
- 신유리 (2012). 여성장애인의 직업활동에서의 적응유연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7-41.
- 이문정, 박봉길 (2014).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장벽의 다중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199-222.
- 이미아, 강영심 (2011).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1-20.
-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에영 (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1870-1879.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 이용, 이주희, 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은주 (2011). 대학생의 취업불안 및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이정애, 최용용 (2010). 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20(2), 55-76.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임통일 (2013). 가족적 지지가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 간 구조 분석. **재활복지**, 17(3), 55-81.
- 장홍근 (2009). 한국 대학생의 경제 및 작업 가치관과 직업윤리. **인간연구**, 16, 7-40.
- 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133-150.
- 정진자, 임명희 (200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영향 변인.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4), 405-430.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지이레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진성희, 정은모 (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이 진로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1), 1-18.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황정희, 정계숙 (2015). 실행주체(agent)로서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경험한 유아교사의 발달 과정 연구. **유아교육연구**, 35(1), 83-111.
- Charmaz, K.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박현선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06).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13).
- Dawn C. Lorenz (2011). A proposed Intergrative Model for Enhanced Career Deveolpment for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Adults Journal*, 10, 24-33.
- Dowrick, P. W., Anderson, J., Heyer, K., Acosta, J. (2005). Postsecondary education across the USA: Experi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2, 41-47.
- Guay, F., Ratelle, C.,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Hitchings, W. E., Luzzo, D. A., Ristow, R., & Horvath, M. (2001). The career development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eir own word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16(1), 8-17.
- Jennifer, M., & Ellen, H. M. W. (2013). Contribution of Social Status and Familiy Support to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3), 378-394.
- Madaus, J. W. (2006). Improving the transition to career for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uggestions from graduates.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19(1), 85-93.
- Metheny, J., & McWhirter, E. H. (2013). Contributions of social status and family support to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3), 378-394.
- Rottinghaus, P. J., Jenkins, N., & Jantze, A. M.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71-285.
- Rowell, P. C., Mobley, A. K., Kemer, G., & Giordano, A. (2014). Examination of a group counseling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 163-174.
- Sears, S. H., Strauser, D. R., & Wong, A. W. K. (2014). Examining career readiness and positive affect in a group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pilot study.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27(3), 307-31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Wang, N., Jome, L. M., Haase, R. F., & Bruch, M. A. (2009).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12-332.

The Study on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rounded Theory

Cho, Hyun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 Bosoon

Dong-Eui University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Lyangeu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offer theoretical frame. We interviewed 12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data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99 concepts, 31 sub-categories, 12 categories revealed by open coding. Secon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d phenomenon of 'making a limited and clear career decision' on casual conditions of 'entered college for career', and 'career decision making can't be delay'. This phenomenon was influenced by contextual conditions of 'human resources supporting', and 'career supporting system'. An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ed coping strategies of 'using college systems', 'endeavors to develop inner mind', and 'hope in working life' depend on intervening conditions of 'phys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and 'difficulties faced by career preparations'. The results of career decision making were 'positive career preparations' and 'continuous efforts'. Third,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consisted of four phases: 'exploration and choice', 'anxiety and confusion', 'regulation and transition', and 'challenge and growth'. And the core category was 'growth as a member of society through continuous effor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basic data for counseling career decision making, develop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developing career support syst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reer Decision Making, Grounded Theory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6. 01. 18